

10장. 이야기의 마무리와 여운: 에필로그(4:18-22)

I. 오늘의 포인트

1. 어떤 내용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.
2. 이 족보를 이미 알고 있는 시대에서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는 이유를 알아본다.
3. 이 족보와 미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신약의 족보와 연결하여 본다.

II. 본 론

A. 다윗왕의 족보로 마무리 되는 룯기

1) 보아스와 룯의 아들 오벳

오벳의 아들인 이새

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

2) 다윗도 할아버지 오벳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기 가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.

: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찬양을 다윗이 표현함.

‘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’(시36:7)

3) 룯기의 시작과 마무리의 상반된 분위기

: 룯기는 그 시작이 기근(빈곤)과 죽음(엘리멜렉과 두 아들)으로 시작하여 풍요(추수와 결혼)와 생명의 탄생(오벳)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.

4) 베들레헴이라는 특별한 지명

: 기근의 장소에서 풍성한 수확의 장소로 상징됨

: 오벳, 이새, 다윗의 출생지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지

: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특별한 왕의 탄생될 장소로 언급됨

‘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, 영원에 있느니라’(미가 5:2)

: 헤롯왕때 메시아 탄생 장소와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장소로 알고 있음

‘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’(마 2:4-6)

‘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’(요7:42)

B.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되는 두 이방여인인 기생 라합과 모압여인 롯

- 1) 모든 민족에 미칠 구원의 복으로 예수님의 탄생 족보
: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여인 롯
: 가나안인 기생 라합과 이방인 모압인 롯이 하나님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안으로 받아 들여진 것이다.
- 2)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대 사명의 말씀
: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나라의 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온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자비의 구원의 역사이다.

C. 롯기 전체를 통하여 다시 돌아보는 핵심 내용

- 1) 하나님의 섭리의 표현 **“우연히도” “마침” “그 때에”**
: 인간의 조작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
: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만, 하나님은 이것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.
: 이 섭리의 손길은 롯기에서 특별히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닌 일상의 삶속에서 섬세하게 나타나고 있다.
: 특별히 롯기는 기근에서 다시 풍년으로 먹거리를 주시는 것으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로 보여준다.
: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는 자들은 얼핏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롯기는 그 결과로 나타내고 있다.
: 그 결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더욱 신뢰하게 만든다.
- 2) 자비(헤세드)와 자비중의 자비(하나님의 특별한 헤세드)
: 롯기의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반영하는 모습의 삶
 - * 롯이 나오미에게 베푼 자비와 헌신
 - * 보아스의 롯에 대한 관대함과 자비
: 이런 자비의 성격을 드러내는 인물들의 결혼을 통해 더욱 분명하면서도 더 큰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났다.
- 3)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자비를 반영하는 모습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?
: 나의 삶속에서 자비를 경험했던 일들이 있는가? 되돌아 보라!
: 내 주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인의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이 이웃사랑의 모습이다.

- : 타락하고 무자비한 사회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.
- :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작은 단위의 공동체로 친척 공동체, 교회 공동체가 나오미,룻과 같은 지체들을 돌보아야 한다.
- : 연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가 속한 사회나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일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및 직업의 의미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.

4)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가 구체화되는 나라

- :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하심의 정신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
- : 하나님의 계명(고엘제도, 안식년, 수혼제도)들이 실제 실현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습
- : 하나님의 법의 실현은 인간의 이기심에 따라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시대풍조를 뛰어 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한다.

5) 사람이 살아나는 공동체의 모습

- : 하나님의 날개아래 보호 받으러 찾아 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신다.
- : 하나님의 날개아래 보호하심의 구체적인 실현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을 통하여 시행하신다.
- : 이런 작은 자비의 실현을 통하여 하나님백성들의 삶이 누군가의 기도응답이 되는 의미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.

5) 고엘(기업무를 자)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룻기는 참된 고엘이 누구인지를 예표함

- :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삶
- :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때 바로 이렇게 진정한 고엘로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시되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희생하셨다.

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‘(빌2:5-8)

III. 적 용

1. 룻기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할 것인가?
2.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?
3. 이 땅에 하나님나라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?